

전체 주제:
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

메시지 13

네 번째 단계의 이김

(4)

천체들과 슬람미가 됨

성경: 아 6:10상, 13, 잠4:18, 롬9:16

I. **휘장 안에서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연인은 천체들로 변화된다. 그녀는 새벽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-아 6:10상.**

- A. 이기는 이들의 모체,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는 빛으로 충만하다. 역대로 하나님의 이기는 사람들은 빛나는 발광체들이다-계12:1-5, 고후4:6-7, 3:16-4:1, 빌2:15, 롬13:11-14.
- B. 밤의 시대인 현재에 그리스도께서는 빛나는 새벽별로서 비추시며, 그분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은 별들이다-계22:16, 1:20, 단12:3.
 - 1. 살아 있는 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의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의로 돌이키게 한다-마2:2, 계1:20.
 - 2. 하나님의 건축물을 파괴하는 자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다.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계시라는 불변의 진리 안에 견고히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별 같은 사람들 사이를 헤매고 다닌다-유12-13.
- C. 이기는 이들의 길은 새벽빛같이 점점 빛나서 대낮에 이른다-잠4:18, 요1:5.
 - 1. 새벽의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-시22의 제목, 눅24:1, 아2:8-9.
 - 2. 새벽빛, 일출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되는 것 모두를 상징한다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다-눅1:78, 잠4:18, 시110:3, 샬5:31.
 - 3.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광활한 고속도로, 떠오르는 해, 끝없는 장래를 보아야 한다-딤후4:8, 계3:7.
- D. 달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상징한다. 교회는 해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 어두운 밤인 이 시대에 빛을 발한다-빌2:15, 고후3:16, 18.
- E.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날개에 치료함을 가지고 떠오르시는 의의 해로서,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재조성하시어,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-말4:2, 마13:43.
 - 1. 치료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,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지만, 우리가 반드시 그분이 우리 위에서, 우리 주변에서, 우리를 통해, 우리 속에서 나시도록 그분의 날개를 사용하실 자유를 드려야 한다-말4:2, 시139:23-24, 사66:1-2, 마5:3.
 - 2. 우리는 빛의 다스림 아래서 빛 가운데 삶으로, 자기 기만이라는 흑암,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되어야 한다-사50:10-11, 시36:9, 마6:22-23, 골1:12-13.
 - 3. 하늘에 속한 이상을 비추어주는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빛은 우리로 하여금 '복된 눈 멀'

- 을 가지게 하여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한다—행9:1-9, 시36:9, 빌3:3.
4. 하나님, 그리스도,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이다.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자녀, 하나님의 교회도 빛이다—요일1:5, 요8:12, 1:4, 시119:105, 마5:14, 계1:20.
 5. 빛은 성소(sanctuary) 안에 있고, 성소(sanctuary)는 지성소이며, 지성소는 입방체이다. 입방체와 신성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삼차원의 방식으로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섞이는 생활을 하여 모든 것을 몸의 교통 안에서 해야 한다—시73:16-17, 엡3:18, 참조 왕상 12:6-16, 행21:4, 11.
 6. 우리는 등이신 어린양 안에 있는 신성한 빛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내적인 통치 아래 살고, 어둠을 분별하며,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생명 안에 자라야 한다—계21:23, 22:1, 빌1:9, 요일 1:5-9, 창1:16, 18.
 7. 우리는 하나님의 비추심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, 죽이고 공급하는 신성한 빛이신 그분을 체험한다—사6:1-8, 요1:4, 엡5:8-11, 13-14.

II.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숙함으로 술람미가 되는데, 이는 그녀가 결혼을 위해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된 것을 상징한다—아6:13.

- A. 우리가 신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신성 모독이지만,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신이다.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거듭 우리에게 말해 준다—계 21:2, 22:17상, 참조 히4:2.
- B. 술람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진영 혹은 두 군대(히브리어로 마하나임)의 춤추는 것에 비해진다.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,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그가 있었던 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고,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물을 ‘두 군대’로 나누었다—아6:13, 창32:1-2.
 1. 두 군대의 영적 의미는,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‘뛰어나게 이긴다’는 강력한 증거이다—롬8:37, 12:5.
 2.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한 사람들을 원치 않으신다. 그분이 원하시는 이들은 오직 연약한 이들, 여자들과 자녀들인 더 약한 이들이다—고전1:26-28, 고후12:9-10, 13:3-5.
 3.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과 하나인 사람들, 땅은 머리털로 상징된(아1:11), 그분께 순복하는 사람들이며, 구슬 꿰미가 있는 목으로 상징된(1:10), 유연한 의지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.
 4. 이기는 이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더 약한 사람들일 것이다—엡3:8, 계3:8, 갈2:20.
 5.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,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, 우리를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—롬9:16, 21-23, 아8:5-6.